

2022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통합공모 심의평 【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지원 】

-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사업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된 108건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서류심사, 보완질문 형식의 인터뷰 심의 등의 단계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계획의 우수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의 심의기준을 중심에 놓고,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해당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취지에 맞지 않거나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모든 각 지역은 경기라는 지역적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각 단위 지역의 특색이 있기에 타 단위 지역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단위 지역의 특색을 잘 살피고 독특한 문화자원을 잘 찾았는지 여부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지원에서 지원자/단체가 가진 문화적 논리와 개별성을 토대로 지역 내 유·무형의 자산을 재탐색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제안들이 많았던 반면, 문화재나 지역 관련 사료史料를 그대로 수용하여 지원자/단체의 그간 활동과 단순 연결한 다소 작위적 접근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역사적, 학술적 자료 생산이 아닌, 과정에서 이어지는 삶-삶터-사람의 연결에 있을 것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기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특정 지역의 가치, 이슈의 반복 재생산에서 벗어나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이에 따른 잊힌 가치를 발굴하는 다각화된 제안들이 절실히 보입니다.
- 지역 내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주민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수 보였으나 정작 '인터뷰' 과정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주민의 구술채록의 목적만을 강조한 사업들은 자칫 주민을 도구화,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선정된 단체들은 사업에서 주민인터뷰를 실행하게 될 경우, 자신의 생애사 혹은 삶의 터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좋은 인터뷰란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적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늘 그렇듯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단체들이 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님들께서는 힘을 잃지 않고 다음을 도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3. 22.

심의위원장 지영관 (공연기획자)
심의위원 김현주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멘 공동대표)
심의위원 신동호 (군포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심의위원 이미화 (이모저모도모소 대표작가)